

자본의 형태 (베에르 부르디외)

2007. 1. 18

최 욱 준

(사) 기독교윤리실천운동

자본의 형태

- 경제 자본
: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돈으로 변환되며
재산권의 형태로 제도화

문화자본

: 교육적 자질의 형태로 제도화

- 사회자본
: 사회적 의무(연결)로 구성,

문화 자본

- 경제 학자들의 한계
 1. 각 행위자나 사회 계급마다 경제적 투자와 문화적 투자에 배분하는 비율이 다름
 2. 가정 내의 문화자본 상속
=>사회구조의 재생산
- 문화자본의 종류
 1. 체화된 상태
 2. 객관화된 상태
 3. 제도화된 상태

문화 자본 – 체화된 상태

- 문화, 교양의 형태
- 체화된 상태로 축적된 문화자본
- 자기 개발, 비용부담, 시간 투자 필요
- 외적인 부가 내적 구성요소인 아비투스로서 변환된 결과 => 한 순간에 전수 불가능
- 상속, 취득에 있어 경제자본보다 은폐
- 문화자본의 분배에서 희소가치 생성
=> 구별짓기로부터의 이윤

문화 자본 – 체화된 상태

- 문화자본의 가장 강력한 원칙
=> 자본의 상속
- 문화자본의 상속은 매우 중요한 재생산 전략

문화 자본 – 객관화된 상태

- 체화된 문화자본과 연관지어 정의
- 문학작품, 미술작품, 유적, 악기 등의 물질의 형태로 객관화
- 오직 법적 소유권만 상속 가능
- 소비, 사용 능력은 체화된 자본과 동일
-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체화된 자본 자체를 전유하거나 그러한 자본의 보유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.

문화 자본 – 객관화된 상태

- 객관화된 자본에 충분히 숙달되고 자신에게 체화된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정도에 따라 사회계급간의 투쟁의 장에서 이윤을 얻고 힘을 발휘

문화 자본 – 제도화된 상태

- 교육적 성취의 형태로 객관화된 문화자본
- 교육적 성취는 문화자본 소유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가치를 제공(제도적 승인)
- 특정 학문자본의 금전적 가치를 보증함으로써 문화자본과 경제자본 간의 전환 비율을 정함.

사회 자본

-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서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
- 특정 행위자의 사회자본의 양은 그가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와 그와 연결된 각각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, 문화적, 상징적 자본의 양에 달려있다.

사회 자본

- 사회자본의 재생산은 사교행위를 위한 끝없는 노력을 전제
=> 경제자본의 지출이 필요
- 사회자본의 양은 그 사람이 지닌 경제자본이나 문화자본의 양과 비례하여 증가

변환

- 해당되는 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권력의 유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변형이 필요
- 이를 위해 다소간의 비용을 지불
- 특히 사회자본은 사교에 투자하는 비용을 장기적으로 투입해야 함.
- 한 영역에서 이윤을 얻으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함.

변환

- 문화자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획득을 위한 시간을 지출할 수 있는 경제자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
- 자본의 공식적인 상속이 금지될수록 문화 자본의 형태를 지닌 자본의 은밀한 순환이 사회 구조의 재생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간다.

